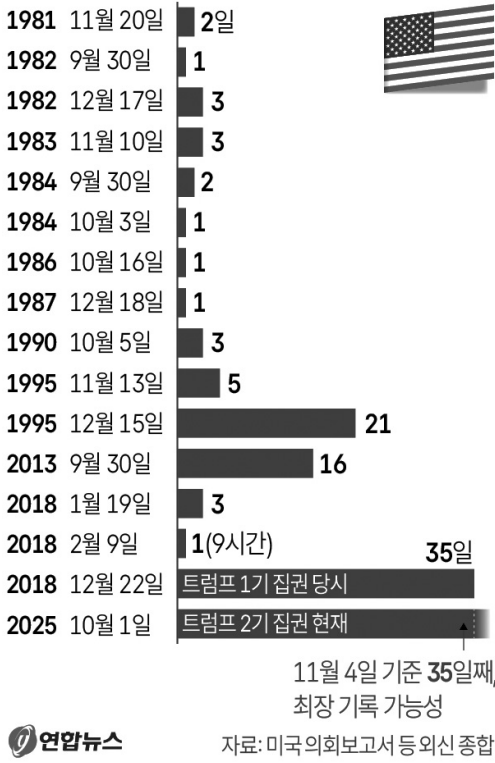


출구 못 찾은 美 연방정부 섰다운 ‘역대 최장’ 기록

여야 평행선에 공무원 수십만 명 무급 근무·강제 휴직 중
공항 지연·결항 등 항공대란에 취약층 지원도 끊겨 불평

미연방정부역대 '섰다운' 일수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섰다운’ 사태가 5일(현지시간) 역대 최장(36일) 신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섰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동의해야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서 보조금 연장이 무산되며 “평균적 미국 국민의 부담이 114% 늘고 400만명은 보험 혜택을 잃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에서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성실한 미국인의 교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더 두려워한다”

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핵융선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유리해진다”며 공화당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핵융선’은 상원 의사규칙을 바꿔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를 60명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절차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섰다운은 5일로 36일째, 최장 기록을 경신한다.
종전 최장은 트럼프 1기 때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졌다.
당시엔 국경장벽 57억달러를 뺀 임시예산안 통과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2기 첫해 재개된 섰다운으로 공무원 수십만명이 무급 근무·강제 휴직 중이다. 항공관제사 1만3000명도 무급 근무가 이어지며 결근·휴가가 늘어 공항 지연·결항과 대기 시간 증가가 확산되고 있다.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섰다운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혼란과 무더기 지연·결항이 불가피하고, 관제 인력 부족으로 특정 공역을 일시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취약계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SNAP)도 비상기금이 11월 소요 90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단 위험이 커졌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4일 처리된 일부 지방선거 결과가 민심의 풍향계가 돼 협상 판도를 흔들지 주목된다.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빌라스푸르 인근 선로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여객열차가 정차 중이던 화물열차 뒤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서 열차 추돌사고…8명 사망·20명 부상

인도에서 여객열차가 멈춰 있던 화물열차를 추돌해 기관사 등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5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빌라스푸르 인근 선로에서 여객열차가 정차 중이던 화물열차 뒤를 들이받았다.
현지 당국자는 “추돌 직후 여객열차 객차 한 칸이 화물열차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사망자에는 여객열차 기관사가 포함됐고, 여성 부기관사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대는 크레인으로 파손 객차를 들어내고 절단기로 분해 작업을 진행했다.
빌라스푸르 정부 관계자는 “찌그리진 객차 안에

간헐 승객 2~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철도 운행사 인도철도는 성명을 내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고, 사고 원인 조사와 사상자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인도에서는 하루 약 1200만명이 1만4000여 편의 열차를 이용한다. 영국 식민 지배 시절부터 건설된 철도망은 매우 복잡하며 총 연장은 6만4000km를 넘는다.
인도 정부는 새 열차 도입과 현대식 역사 건립 등 300억달러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노후 선로와 차량이 많고 관리가 부실해 매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욕시장 이어 버지니아·뉴저지주지사 선거도 ‘민주 싹쓸이’

트럼프 일방통행 국정운영 견제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째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풍향계로 주목받은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견제구’를 던졌다.
특히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는 진보 아이콘인 조만 램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무슬림으로는 처음 시장에 당선됐다.
AP통신에 따르면 개표 진행 중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계열 스펜버거 전 연방하원의원이 공화당 원섭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
82% 개표 기준 득표율은 스펜버거 56.2%, 얼-시어스 43.6%다.

공화당 소속 현직 주지사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사직을 탈환했고, 여성 주지사 배출도 처음이다.
46세 스펜버거는 보수 성향이 강한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고 CIA 근무 경력이 있다. 하원 시절 일부 바이든 정책에 반대하는 등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얼-시어스는 해병대로 복무했지만 여론조사 약세를 극복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 지지를 밝히지 않았다.
부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가잘라 하시미가 당선돼 주정부 선출직 사상 첫 무슬림 여성 기록을 썼다.
법무장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제이 존슨이 공화당 현역 제이슨 미야레스를 꺾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마이키 세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잭 치타렐리 전 주위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71% 개표 기준 세릴 56.5%, 치타렐리 42.9%로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했다.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인 세릴은 변호사·연방검사도 지냈고 2018년 첫 당선 이후 4선을 기록한 중도파다. 사업가 치타렐리는 세 번째 도전에 실패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결과를 트럼프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본다.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섰다운 속 피로감이 반영됐고, 민주당은 물가·전기요금 등 생활 이슈에 집중했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램다니가 80% 개표 기준 50.6%로 앞섰고,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는 41.2%를 얻었다.
램다니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무상교육을 내세웠고, 재계와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를 ‘좌파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연일 내리막길’ 비트코인 결국 10만달러 붕괴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서부시간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과 견줘 약 7% 하락한 9만9306달러(약 1억42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210.5달러와 견줘서는 약 21% 낮은 수치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해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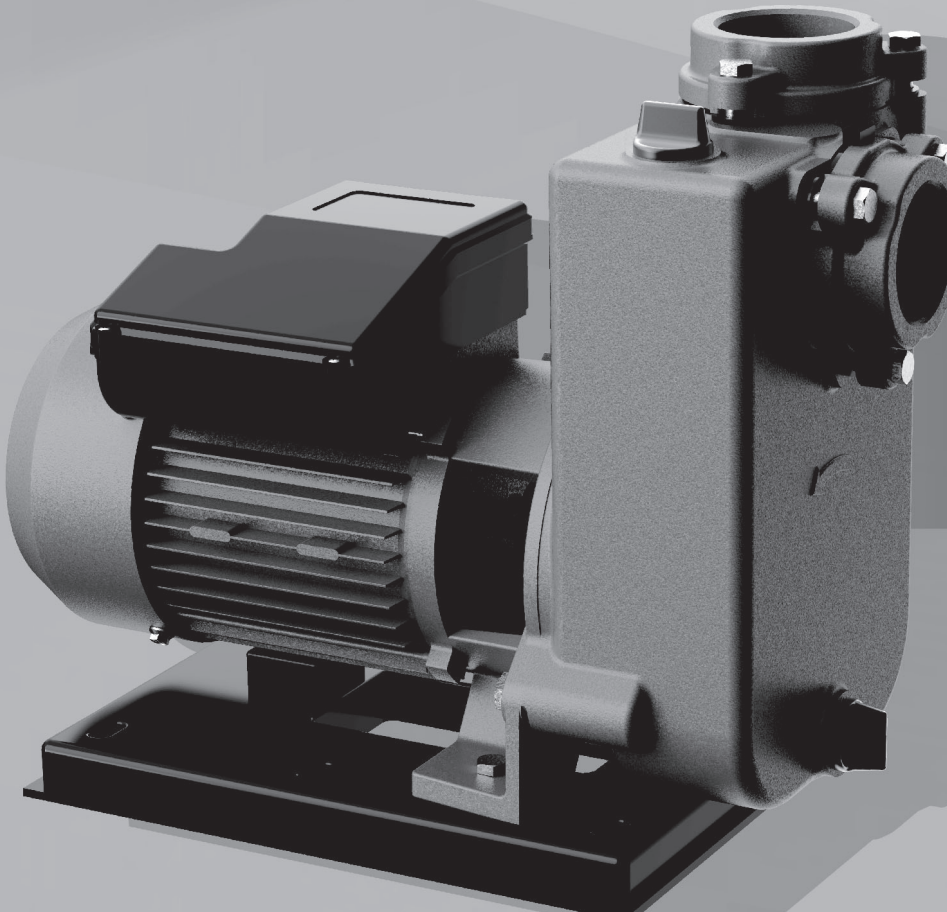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경제전문 매체 CNBC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펄스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낙폭을 더 키워 24시간 전보다 12% 폭락한 개당 31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교황청 “성모는 ‘공동구세주’ 아냐”…수백년 논란 종지부

새 교령 전문 조만간 공표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왔는지 여부를 둘러싼 수백 년 논쟁이 교황청의 새 교령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를 ‘공동 구세주’로 부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예수만이 인류를 ‘저주’로부터 구원했으며, 성모는 예수를 낳아 구원의 문을 연 중재자라는 취지다. 이번 지침은 교황 레오 14세 승인을 받은 새 교령에 따른 것이다.
가톨릭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성모가 그 예수를 도왔는지 여부가 오랜 쟁점이었다.
역대 교황도 갈렸다. 프란치스코와 베네딕토는

‘공동 구세주’ 칭호에 반대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한때 지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용을 중단했다.
한편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에서 취재진에 미국 정부 시설의 이민자 여성체 금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여성체는 미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으로 신자에게 신성한 의무다. 교황은 시카고 브로드뷰 ICE 수감자들의 영적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라며, 마·멕시코 국경의 이민정책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교황청은 이번 지침이 호칭과 교리 교육 전반에 적용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가르침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향후 신학적 해설 문서를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교령 전문은 조만간 공표된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